



컵라면은 절대로 불어선 안 돼

김지완 글 | 김지형 그림
문학동네 | 136쪽

어린이의 명예를 존중하는 사려 깊은 문장과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으로 딱 알맞게 익혀 낸

여섯 편의 이야기

제26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집필: 최은정

▶ 이야기 1 우리가 여기를 집으로 느낄 때까지

-「친환경 방수 종이 우주선」-

지유의 마음 안에는 울고 있는 돌이 굴러다녀요.

지유는 먼 행성에서 온 니닝치의 마음 안의 돌이 무엇인지도 알 것 같아요.

지유와 니닝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두 친구의 신비로운 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 ▶ 지유 마음 안에 울고 있는 돌이 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지유는 왜 담임 선생님께서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지 못했나요?

- ▶ 니닝치는 왜 이곳이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고 느꼈나요?

- ▶ 지유는 니닝치 마음 안의 돌이 어떤 점에서 자신의 돌과 같다고 느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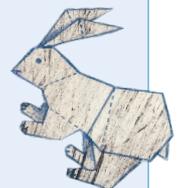


“.....모두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럼 너는?”

“나는..... 그럴 때마다 종이를 접지.”

외로움을 이기는 나만의 방식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딱3분!

-「컵라면은 절대로 붙어선 안 돼」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막 작동 버튼을 누른 오슬기 앞에 전자레인지 요정이 나타났어요.

무척 다급한 전자레인지 요정과 딱히 그의 제안에 응할 생각이 없는 오슬기.

오슬기와 전자레인지 요정 쫄쫄뽀끼의 명예를 건 한판 승부를 구경해 볼까요?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딱 3분! 네가 원하는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게 해 주마.
3분 동안 그 사람으로 살아 보는 거야.

▶ 나라면 전자레인지 요정 쫄쫄뽀끼의 제안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로사 언니? 됐어요! 절친 특방? 그런 걸 왜 훔쳐봐요?

학원 선생님? 우리 엄마 몸으로?..... 싫어요!

▶ 오슬기의 대답을 듣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요즘 아이들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잖아. 정말 끔찍하군, 끔찍해.

▶ 전자레인지 요정의 말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해 주고 싶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었다. 오슬기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딱 3분 동안 잘 익힌, 면발이 분기 전에 먹는 컵라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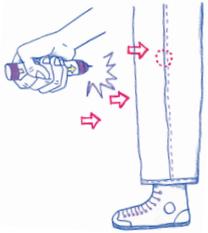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개미맨 구조 프로젝트

「개미맨과 엔젤」

개미한테 물린 후 아나필락시스 환자가 된 기민훈과 기민훈을 도우려 애쓰는 남나리.
 남나리의 마음이 뭔지 따져 물으려 했던 기민훈은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떨림. 기민훈과 남나리의 마음을 함께 따라가 보아요.



“만약에 기민훈 바지가 너무 두꺼워서 바늘이 휘거나 부러지면 어떡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 강당에서 가장 열심히 설명을 듣던 애가 남나리였다. 손까지 들어 질문한 사람은 개박에 없었다.

▶ 개미맨이 된 민훈이는 나리의 관심과 행동이 어떻게 생각 됐나요?

▶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고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되나요?



▼ 민훈이는 나리에게 궁금했던 걸 물어보고 답을 받았을까요?
 뒷이야기를 상상하며 민훈이의 일기를 이어 써 보세요.

일기 _____ 월 _____ 일

오늘 남나리에게 물어보았다. “그럼 넌 왜 나를 줄곧 보고 있었는데?”

“보는 이”는 수호천사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난 천사도 아니고, 널 대단히 수호해 주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보는 이’라고 칭할게. 나는 너를 줄곧 보고 있었어. 5차원에서. 불쌍해서가 아니라 네가 좋으니까.”

나에게 ‘보는 이’가 있다면 나의 어떤 모습을 지켜봐 주면 좋을까요?

활동4 슬픔을 간직할 줄 아는 우리들

-「우리가 티티새라면」

김우주는 입천장에 난 옴니가 신경 쓰여요.
게다가 양은석은 우주가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우주를 미워하기로 한 것 같아요.
우주에게 일어난 일을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에 맞게 써 보세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발단

김우주 # 옴니

입천장에
이상한 게 났어.

사건이
드러나는
전개

티티새 # 반러로봇 # 아이들



문제가
커지는
위기

양은석 # 착각 # 이상한 애

애들이 알면 넌 진짜
이상한 애가 될 거야.
어쩌면 나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는
절정

쪽지 # VR체험실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결말

이별 # 고모

고모, 고모는 옴니를
빨 때 많이 아팠어?



“잘 떠나보낸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고모, 나는 지금 슬퍼, 슬퍼서 옴니가 욕신거린단 말야.”

누군가와 헤어진 적이 있나요?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활동5 붙어 보아야 아는 거지

-「벌새처럼」-

강민준과 키 싸움을 하며 괴로워하던 오태양은 어느 날 전설의 줄넘기왕을 만나요.

태양이는 왜 줄넘기왕을 뒤로한 채 벌새처럼 달렸을까요?

오태양, 강민준, 줄넘기왕의 이야기를 네 컷 만화로 완성해 보세요.

1 나 오늘부터 _____ 다닌다.
럭셔리 프리미엄 어린이 _____ 클리닉이지.

‘그깟 키커스가 뭔데?’ 나는 파란색 줄넘기를 손에 쥐고,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섰다.

2

나 전설의 줄넘기왕이야.
내 특징은 _____.

파란색 추리닝을 차려입은 꼬마가 시야에 들어왔다.

3

그래, 너 잘났다.

잘나려고 하는 거 아닌데?
_____ 하는 건데?

줄넘기가 뭐가 그렇게 진짜진짜 재밌다는 건지.

4

강민준, 키 싸움 같은 거 그만하자.

그 전학생, 축구는 잘할 것 같냐?

그거야 모르지.
붙어 보아야 아는 거지.

나는 불현듯 깨달았다.
나는 _____ 을 찾으러 가야 한다.



나도 처음 축구를 시작할 때는 드리블을 여섯 시간씩 연습하고, 이마가 까질 만큼 헤딩을 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공터로 마구 뛰어나갔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그 귀신, 좋은 귀신이야

-「점박이우산귀신」-

찰박섬에는 비 오는 날에만 나타나는 점박이우산귀신이 있대요.

귀신을 마주친 정소정은 잘못을 털어놓게 되지요.

소정이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함께 헤아려 보아요.

정소정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점박이우산귀신은
정소정이 말한 잘못에 대해
왜 잘못이 될 수 없다고 했나요?

정소정은 엄마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요?
편지로 써 보세요.

점박이우산귀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어린이가 지나간 잘못으로 영원히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조금 나눠 드는 것이지요.
그뿐입니다. 자, 이제 비가 그쳤으니 저는 가 봐야겠군요.”

내가 점박이우산귀신을 만난다면 어떤 잘못을 털어놓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세요.